

소년화자 서사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의미*

- 『마당 깊은 집』, 『장난감 도시』,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

김미영**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장자의 책무와 가족주의
3. 고향상실과 가족의 해체
4. 탐색자와 세상의 발견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마당 깊은 집』, 『장난감 도시』,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을 통하여 한국전쟁 직후, 정신적·물질적 결핍의 고통이 심했던 주인공 소년들의 성장의 의미를 살펴본 글이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소년 화자를 내세워 세상의 이치, 또는 삶의 부조화를 보여주면서 소년의 성장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려내고 있다. 이때 소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대상은 ‘음식’으로서 이는 빈곤의 일상을 구체화하여 소년의 꿈과 희망의 성취와 좌절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

『마당 깊은 집』의 주인공 ‘나’ 길남은 억척스러운 삶의 자세를 지닌 어머니 밑에서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지니도록 교육받은 소년이다. 주인공에게 ‘마당 깊은 집’ 생활은 굶주림의 시절로 회상되며, 그를 가장 곤경에 빠뜨린 것은 모두 음식과 관련 있다. 주인집의 음식을 훔쳐먹은 일, 장정의 밥먹는 모습을 구경하기, 크리스마스 파티(음식)를 구경하는 등의 사건에서 ‘음식’에 대한 욕망은 그의 신체적 허기를 드러내는 구체성으로 작용하거나 ‘밥’이 지닌 경건함을 깨닫게 한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9년도).

** 한양대학교 교수

『장난감 도시』는 고향에서 내침을 당한 ‘나’(윤)의 가족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판지촌 생활에서의 부적응을 담고 있다. 판지촌은 한국전쟁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나’의 가족은 이곳에서 서서히 가족의 해체에 직면한다. 이때 정상적인 섭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조악한 음식들은 주인공 ‘나’에게 고향의 상실감, 가족의 해체, 애정결핍 등을 구체화하는 상징물이다. 음식은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고향의 근원적 사랑과 혈육의 사랑이 충만했던 시절로 회귀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시골 소읍의 장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흠어머니 아래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한 형제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장터라는 공간은 ‘나’의 성향을 탐색자로 형성시킨 면이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음식문화는 장터와 관련 있다. 양조장의 ‘고두밥’이 대표적이다. ‘나’의 형제가 양조장의 일꾼 장식도의 ‘힘’에 대한 선망, 이발관의 거울을 통해 ‘미로와 전도’의 의미를 파악한 것 등은 어른들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미다락의 지독에 가득 담겨 있는 쌀과 곡식의 발견은 두 형제를 결핍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새로운 경험이 된다.

세 작품에 나타난 음식은 생명유지의 기본임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문학적 질료가 된다. 『미당 깊은 집』에서는 음식을 통해 장자로 길들여지는 소년과 가족의 유대를 보여주며, 『장난감 도시』에서는 음식을 통해 고향상실, 가족의 해체를 체험하는 소년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에 나타난 음식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소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미당 깊은 집』,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장난감 도시』, 장자의식, 가족주의, 고향상실, 가족해체, 음식문화, 장터, 탐색자

1. 들어가는 말

음식은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인간의 생리적 현상과 사회관계 유지에 음식의 역할이 큰 몫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욕망과 충족감은 지속성이 짧기에 음식 섭취를 위한 활동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인간의 삶 중에서 ‘먹는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황석영의 단상 속에도 이와 같은 ‘먹는 행위’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끼니’가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시간을 적절히 ‘분할’해주는 것에도 의미를 두었다. 특히, “먹지 않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¹⁾라고 표현할 정도로 먹는 행위와 시간의 의미, 인간관계에 대하여 천착하였

1) 황석영, 『초판 서문 먹지 않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황석영의 밥도둑』(교유서가, 2016), 265면.

다. 그의 말에서 음식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사회성과 서사성을 알 수 있다. 황석영 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음식과 관련되는 산문²⁾을 꾸준히 발간하는 것은 음식에 담긴 추억뿐만 아니라 음식만큼 사람살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학에서도 음식은 인간의 삶을 분석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연구 분야가 된다. 음식과 몸, 음식과 인류학의 관계를 규명한 코니한은 “배고픔보다 더한 무력함의 절대적 징후는 없다”고 하였으며, “음식에 대한 우리의 극단적인 욕구로 인해, 식량은 가장 근본적이고 명백한 절대적 형태의 힘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³⁾”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굶주림(음식 결핍) 상태가 인간에게 끼치는 개인적 영향과 음식(식량)이 국가정치의 관계에 미치는 정치적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음식은 개인의 생존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 간의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음식, 즉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소년에게 음식의 결핍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는 데에 주력한다. 음식이 주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천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음식을 토대로 한 문화론적 시각은 소설에 구현된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음식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인간의 본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담은 문화적 의미들까지 포섭하게 된다. 음식이 단순한 일차적 섭취물의 위치를 넘어 문화적 기호를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강해졌다는 뜻이다.⁴⁾

최근 들어 음식문화를 방법론으로 내세운 문학연구⁵⁾라든가, 아예 음식을 다루고 있는 소설만을 묶어낸 소설집⁶⁾을 발간할 정도로 음식에 대한 관심은 문학계에서도 커지고 있다. 현대소설 연구에서 ‘음식’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소설과 여성의 관계, 여성과 음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김경수의 글⁷⁾이라고 본다. 이 글은 90

2) 김훈, 『라면을 끓이며』(문학동네, 2015); 성석제, 『소풍』(창비, 2006); 성석제, 『칼과 황홀』(문학동네, 2011); 공지영, 『시인의 밥상』(한겨레출판, 2016); 윤대녕, 『칼과 입술』(문학동네, 2016).

3) 캐롤 M. 코니한, 『음식과 몸의 인류학』, 김정희 옮김(갈무리, 2004), 27면. 이 내용은 Lappe & Collins (1986)와 Arnold(1988,3)가 언급한 것을 코니한의 저서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4) 김미영,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의미 -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81집(우리말글학회, 2019), 240면.

5) 소래섭, 『백식의 맛』(프로네시스, 2009); 정소영, 『맛, 그 지적 유혹』(니케북스, 2018).

6) 최은영 외, 『과인 다이닝』(은행나무, 2018).

년대 여성작가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을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분석하며 음식과 연결하였다. 페미니즘적 관점과 음식을 토대로 한 문화기호학적 접근의 결합을 보여준 김재경의 경우는 여성의 삶에 나타난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였다.⁸⁾ 사실, 음식을 기호로서 접근한 연구는 이경의 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20·30년대의 근대소설부터 5·60년대의 전후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기호학으로 분석하여 음식에 의한 관계의 서열과 위계화를 밝힌 바 있다.⁹⁾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 방법으로는 김동식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1920년대 김기진과 최서해의 작품에 나타난 ‘밥’의 형상을 무의식으로 접근하였다.¹⁰⁾ 그리고 김주언의 연구에 이르면, ‘음식소설’이라는 장르를 주장하게 된다.¹¹⁾ 그는 음식 모티프가 나타난 소설에 대하여 ‘음식소설’이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화기에서부터 1920년대 소설을 고찰하였다. 소재에 의한 장르 구분은 문학분류의 기계화로 보일 수 있으나, 그동안 산발적으로 나타난 음식문제의 관심을 총체적 지평도에서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최근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주목받으면서 ‘채식’의 의미를 비롯하여 음식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¹²⁾ 작품에서 사소한 위치에 머물렀던 음식을 재조명하면서 소설 이해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은 페미니즘, 기호학, 문화인류학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글은 한국전쟁을 체현한 작가들의 자전적 요소가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소년화자의 성장을 보여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등이다. 세 작품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

7) 김경수, 『소설·여성·음식』, 『인문과학연구』 8(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8)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 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9) 이경, 『근대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현상과인식』 28(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4); 『5·60년대 한국 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사회 이론』 가을/겨울(한국사회이론학회, 2004).

10) 김동식, 『1920년대 중반의 한국문학과 ‘끼니’의 무의식 : 김기진과 최서해, 그리고 ‘밥’의 유희론』, 『문학과학경』 11(문학과학경학회, 2012).

11) 김주언, 『한국 음식소설의 맥락과 가능성』, 『우리어문연구』 52집(우리어문학회, 2015).

12)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학경』 9(문학과학경학회, 2010).

우찬제, 『섭생의 정치경제와 생태 윤리』, 『문학과학경』 9(문학과학경학회, 2010).

김미영,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주체화의 방식 - 한강과 오수연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9집(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김미영,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의미 -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81집(우리말글학회, 2019).

을 통하여 한국전쟁 직후, 정신적·물질적으로 결핍의 고통이 심했던 주인공 소년들의 성장 의미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을 재현한 소설에서 ‘음식’에 대한 관심표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겨진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소년 화자를 내세워 세상의 이치, 또는 삶의 부조화를 보여주면서 소년의 성장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려내고 있다. 이때 소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대상은 ‘음식’으로서 빈곤의 일상화를 나타낸 것이다. 결핍의 일상 속에서 소년의 꿈과 희망이 음식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거나 또는 좌절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자의 책무와 가족주의

1988년에 발표된 『마당깊은 집』은 한국전쟁 직후, 대구 약전골목¹³⁾의 장관동에 위치한 ‘마당 깊은 집’에 살던 소년화자 ‘나’(길남)의 회상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나’의 회상 속에 안채에 살던 주인의 삶과 바깥채에 살던 주인공의 식구를 비롯한 5가구의 삶을 소환함으로써 아버지 없는 집안의 장남 ‘나’의 성장이 어떤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드러난다.

‘나’(길남)의 어머니는 남편의 월북 사실을 숨긴 채, 싹바느질로 4남매를 키운다. 그녀는 장남인 길남에게 유난히 가혹한 편이다. 아버지 없는 집안의 맏아들을 강인한 ‘장자’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셈이다. 그동안 김원일 소설의 연구에서 장자와 모자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된 과제였으며 그 의미도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장자는 ‘1950년대 초 세상에 처음 눈을 뜬 세대가 가진 의식의 본질’¹⁴⁾이라든가 ‘아버지 찾기’¹⁵⁾의 의식과 연계되는 점, ‘과도한 어머니 숭배의 경향이 자칫 봉

13) 옛 대구읍성의 남편 성벽이 있던 거리에 약 700m 길이로 이루어진 지금의 약전골목은 원래 이곳에 개설된 것이 아니다. 대구약령시가 최초로 개설된 곳은 경상감영 밖은 객사(客舍) 안뜰이었다. 그러나 약령시가 해마다 번성함에 따라 개설 장소가 좁아 객사 뜰을 중심으로 차츰 범위를 넓혀가게 되었고, 결국 지금의 약전골목으로 100여년 전 이전하게 된 것이다. 1954년 당시의 약전골목 모습과 현재의 약전골목을 비교한 사진을 볼 수 있다. 현재의 약전골목은 대구 최대의 보행구역인 동성로와 중앙로에 인접해 있고, 이곳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송주연, 『도시정체성의 관점에서 본 대구 역사경관 읽기』, 『학교교육연구』 제6권(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10), 81면.

14) 류철균, 『대상화된 운명의 형식』, 『작가세계』 여름호(세계사, 1991), 69면.

15) 하오백, 『장자의 소설, 소설의 장자』, 권오룡 엮음, 『김원일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2002); 성민엽,

건적인 것으로의 회귀¹⁶⁾일수도 있다는 지적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이 글에서 다시 ‘장자’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장자’의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는 데 있지는 않다. 소년이 장자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준 것에 오히려 관심을 두는 입장이다. 바로 ‘마당 깊은 집’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이러한 가족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음식’과 ‘힘’에 관심을 두면서 특히 음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목할 것이다.

장자에 대한 내용은 이 작품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깨끗한 몸』에서부터 표면화되면서 김원일 소설의 근간을 이루었다. 도대체 어머니가 생각하는 ‘장자’는 어떤 인물을 말하는가? 이 작품 안에 드러난 것으로 살펴보겠다.

어머니는 ‘나의 처지가 “위체에 사는 학생들과 다르기에” “우짜든동 힘자라는 대로 노력”하여 “남한테 눈총 안 받으며 사람 구실”(32면)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구실’은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모습의 가장을 의미한다고 본다. 자식에게 친어머니일까 리는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혹독한 가정교육을 하는 어머니는 전쟁 직후 팽배한 이념적 갈등 때문에 남편의 월북 사실을 숨겨야 하고, 전쟁으로 인한 궁핍의 시대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장자’에 대한 믿음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의명분과 신념을 추구하는 이념적 인물보다는 가정의 안정을 책임지는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나’에게 끊임없이 가난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조하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데 무게를 둔 이유도 남편의 부재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어머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갱험을 많기 쌓는 길”(33면)이 가난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공부’와 ‘경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어머니의 교육열은 굶주리는 가난 속에서도 만딸을 대학교까지 보내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그러한 어머니가 친척집에 맡겨 두었던 장남 ‘나’를 데려와 바로 중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신문배달 등의 힘든 일을 시킨 것은 ‘세상살이의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머

『고향찾기, 혹은 화해의 서사-김원일의 <노을>』, 『문학사상』(문학사상사, 1999); 유임하, 『아버지 찾기와 성장체험의 역사화-김원일의 분단서사』, 『실천문학』 여름호(실천문학사, 2001); 강진호, 『민족사로 승화된 가족사의 비극-김원일론』, 『현대소설연구』1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16) 성민엽, 윤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문학과사회』 겨울호(문학과지성사, 1992), 1451면.

니가 ‘나에게 모범적인 인물로 제시한 인물은 상이군인 준호 아버지, 공부를 잘하는 평양댁의 둘째아들 정민, 그리고 주인집 장작을 패준 주씨이다. 이들의 특징은 월등히 공부를 잘하거나 자신의 부지런함과 성실성으로 가족을 지키고, 가족의 결속력을 보여준 인물들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가족주의는 가장의 가족보호, 가족 간의 결속 및 애정을 의미한다. 평자 중에는 김원일의 작품에 나타난 보수적인 가족이데올로기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 의미가 담긴 가족이데올로기보다는 사랑과 신뢰를 토대로 하는 가족주의로 보고자 한다. 신체불구인 준호 아버지가 홍수 때 보여준 리더십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장작을 패던 주씨가 월남한 가족들을 찾기 위해 애쓴 모습, 어머니가 샅바느질 손님으로 만난 ‘문자 이모’와 지냈던 가족적 유대감 등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는 가족이데올로기보다 공동체의 삶과 가족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나’의 환경은 어머니의 엄격한 ‘장자 만들기’의 교육열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족애의 분위기도 주요한 환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가 ‘마당 깊은 집’에서 성숙한 인물로 변화하는 것은 모두 음식과 관련이 있다. 안채의 음식을 훔쳐 먹은 일과 안채에서 벌어진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티를 구경한 일, 즉 음식에 대한 욕망 때문에 곤경에 직면하고, 또 그로 인해 각성을 하기 때문이다. 파티구경은 ‘나’에게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가출로 이어진다.

‘나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위채 부엌에서 밥을 훔쳐 먹었다. 세 차례나 이어진 도둑 밥의 행위는 ‘나’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인집 식모 안씨는 “배가 쪼매 고푸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될라카모 그췌은 꺾꺾이 참을 줄 알아야제.” (74면)라는 충고를 하였다. 그녀가 말한 ‘사나이 대장부’의 의미는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한 ‘장자’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안씨의 따뜻한 충고 앞에서 “뜨거운 눈물”(74면)을 흘린 ‘나’의 행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며, 이 사건 이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고백은 ‘사람 구살’에 대한 소년화자의 의식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드러낸 대목이다.

‘나에게 가장 위기라 할 수 있는 이들 동안의 ‘가출’ 사건도 발단은 음식에서 비롯된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티로 분주한 안채 분위기에 덩달아 흥분하였다.

위채 부엌은 전등불이 환한 가운데 군방각에서 파견된 요리사가 부지런히 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안씨는 더운 김이 오르는 지지고 볶은 그 새 음식을 큰 접시에 담아 대청으로 날랐다. 옥이도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빈 접시를 부엌으로 나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몰래 그 접시 바닥을 개처럼 훑아대었다. 추위에 떨며 그 파티를 지켜보고 있던 나 역시 옥이처럼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이나 얻어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꾸이 속셈이 있었으나 그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¹⁷⁾

안채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미군과 경찰 요인물 등을 초대하고 장관동 일대에서 유명하다는 중국 음식점 ‘군방각’의 요리사를 두 명이나 초빙하여 뷔페식의 상차림을 준비하였다. 안채에서 벌이는 파티의 장면과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전쟁 직후, 모든 물자가 부족한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장면은 전쟁 직후 새로운 상류층으로 떠오른 안채 주인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바깥채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장면은 매우 드물게 그려져 있다. 작품 곳곳에 만두, 군고구마, 풀빵 등의 음식 모티프가 편재한 것에 비하면,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유일하게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평양택 집으로 묘사되었다. 가정 형편을 넘어선 푸짐한 육식의 음식은 ‘나’의 눈에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반면 굶주림이 몸에 밴 자식들을 거느리는 어머니에게는 음식 냄새가 고통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는다. 평양택의 음식은 폐결핵에 걸린 아들 정태를 위한 식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난치병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의 안간힘이었고, 어머니는 그 마음을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당 깊은 집 아래채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구경한 사람은 경기택과 ‘나’뿐이었다. 경기택은 통역사로 파티에 참석한 딸 미선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는 화려한 파티, 즉 음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추위도 잊고 겨울날 구경꾼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주인 집 크리스마스 파티를 구경한 댓가로 어머니에게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가출을 한다. 이들 동안의 가출 중에 누나는 신문배급소로 찾아와 자신의 도시락을 두고 간다. 가출은 어머니가 역 대합실에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면서 ‘나’와 어머니의 길고 긴 애증관계도 해소된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는 자신에게만 ‘소고기 국’이 놓여 있었다.

17) 김원일, 『마당 깊은 집』(문학과지성사, 2007) 201면. 이후의 인용은 페이지 수만 기재한다.

아침 밥상을 받자, 콩나물과 대파 건더기 사이에 쇠고기 기름이 동동 뜨는 고깃국이 내 밥그릇 옆에만 놓여 있음을 알았다. 그뒤로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며 번덕이 죽 끓듯 했지만, 그 순간만은 내가 어머니 아들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221면)

이 당시 ‘나’에게만 허락된 ‘쇠고기 국’의 의미는 장자 예우에 대한 음식 문화라 할 수 있다. 소고기 국은 자신이 어머니의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물증이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육식문화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연장자, 남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육류의 섭취는 계층 조직을 드러내는데, 이는 빈곤층과 상류층의 구분뿐만 아니라 성차도 포함된다.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는 항상 남성 ‘가족 부양자’의 몫이었고, 남성과 여성의 고기를 먹는 횟수가 다르기도 하였다.¹⁸⁾ 전쟁 직후, 끼니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궁핍의 상황에서 ‘쇠고기 국’은 매우 특별한 음식이었고, 그러한 음식을 오직 ‘나’에게만 허락하였다는 것은 아들의 가솔행위를 묵인함과 동시에 장자로서의 예우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마당 깊은 집’ 시절의 주요 인물 중에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은 주인집 장작을 패주었던 주씨(주억술)가 될 것이다. 어머니는 그의 근면과 성실함을 아들에게 상기시키려 애썼는데, 어머니의 이런 노력 이전에 이미 ‘나’에게는 주씨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는 성장기의 소년에게 ‘힘’의 모습을 보여준 첫 장정으로서 노동 이후에 섭취하는 음식의 의미를 인식하게 만든 인물이다.

① 장정은 내게 나무 패는 요령을 직접 실습시켜주었다.

“내 힘이 네 힘 정도밖에 돼잖는다구 치자. 자, 보이라. 내가 힘 없이 도끼를 이렇게 쳐들어 도끼를 떨어뜨리듯 나무를 맞추어보마” 하더니, 장정이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 들고 도끼날을 통나무 가운데에 떨어뜨렸다. 희한한 일이었다.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도끼날이 떨어지는 무게만큼 통나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썩 벌어졌다. 벌어진 틈 사이로 두 번째 도끼날이 그렇게 박히고, 세 번째는 통나무가 스스로 가슴을 활짝 벌리듯 쪼개졌다.

“세상 이치가 힘으로만 되지 않는 일두 많지.”(146면)

18)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옮김(시공사, 2008), 287~291면.

② 장정은 장작 때는 옆에 가마니를 깔고 밥상을 받았다. 그는 안씨에게 대접을 달라더니 콩나물·시금치·김치를 밥과 함께 대접에 붓고 고추장으로 비볐다. 나는 장작을 다시 패려다 말고 아가리가 미어지게 먹는 그의 걸쭉한 먹성을 지켜보았다. 나는 거지가 아닌데도 남이 밥 먹는 장면만큼이나 좋은 구경거리가 없었다.(149면)

①은 ‘힘’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내용이고 ②는 노동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온당한 밥’¹⁹⁾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간간한 안채 노마님은 주역술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태도, 노동 능력을 보고 신뢰감을 드러낸다. 그것은 식모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주역술의 ‘걸쭉한 먹성’은 노동과 그것을 수행하고 냈을 때의 당당함, 보상을 마땅히 수용하는 태도 등이 종합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밥 먹는 모습에 매료된 ‘나’의 관심에는 음식 결핍에서 비롯된 선망의 시선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작용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의 신성함과 당당한 태도에 매료된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주역술과 안씨에 대한 회상, 특히 음식과 관련된 서시는 꽤 많은 분량으로 전개되었다.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연의 계기도 ‘음식’에서 비롯되었다. 주역술이 처음 마당깊은 집의 안채에 장작을 쌓던 날은 초겨울 비가 내린 날이었다. 안씨는 그에게 전쟁통에도 남아 있는 인간애를 보여준 인물이다. 그녀가 배려한 따뜻한 ‘송충’, 넉넉한 음식, 무엇보다 자신의 고향을 떠오르게 한 ‘시례깃국’의 융숭한 대접은 주역술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주역술은 그녀에 대한 고마움을 군고구마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음식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성인이 된 ‘나’에게 여전히 주역술의 기억이 강렬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은 소년 시절에 대한 그리운 회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재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었던 삶의 이치를 보여준 어른이었기 때문이다. 성장기의 소년에게 장작을 멋지게 패던 주씨의 행위는 ‘힘’을 구사하는 남성의 진정한 모습이었고, 소년의 눈에 ‘힘’²⁰⁾은 새로운 각성의 대

19) ‘온당한 밥’이란 말은, 4장에서 밝힐 내용이지만 미리 언급한다.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에 나오는 어머니의 ‘음식’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20) 이 연구의 발단은 소년화자의 성장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대상으로 ‘음식’과 ‘힘’을 주목한 데에서 비롯하였으며, 두 대상을 함께 다루었다. 그런데 세 작품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를 밝히는

상이 된 것이다.

『마당 깊은 집』의 ‘나’에게 ‘마당 깊은 집’이라는 공간은 전쟁 직후의 험난한 사회에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었으며, 비록 아버지는 부재하였지만 장자로 성장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던 조력자들이 있었던 공간이다. 이점은 다음에 살펴볼 『장난감 도시』와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조력자와의 관계에 음식은 주요한 매개가 되어 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3. 고향상실과 가족의 해체

이 장에서는 『장난감 도시』(1982)에 나타난 음식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장난감 도시’, ‘끓주린 혼’, ‘유다의 시간’으로 구성된 연작소설로서, 고향에서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소년화자 ‘나’(윤)의 가족이 도시의 판자촌으로 이주한 이후, 궁핍한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나’에게 고향은 학예회의 성공으로 기억된다. 학예회는 전쟁 이후 시골 학교에서 치른 큰 행사였으며, ‘나는 청중들로부터 미래의 ‘면장갑’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동극과 합창에 열연하였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마을 이장직을 맡았던 웃음소리가 맑은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청결한 분이였다. 그러나 ‘나’의 가족은 ‘낮익은 순경’과 일단의 사내들이 삼촌을 찾은 사건 이후 더 이상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이사할 때 번성한 어머니의 일가들과 작별인사마저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을 보면 삼촌의 일은 이데올로기 문제와 연루된 것일지도 모른다.

삼촌의 행적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성인 화자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다. 『마당 깊은 집』의 소년 화자가 중산층의 성인으로 성장하였고,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의 성인 화자가 소설가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 작품에 나타난 성인 화자의 정보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한두 군데 드러나는 ‘그때’라는 시간 지표에 의해 ‘나’의 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판자촌의 생활을 매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지면이 필요했다. 그리고 ‘힉’에 대한 의미도 간략하게 기술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기에 ‘힉’과 관련된 성장의 의미는 부득이 추후의 연구에서 좀 더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힉’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를 미리 요청하는 바이다.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나’의 판자촌 생활에 대하여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의 경계가 무너진 ‘난민’²¹⁾들의 삶으로 분석한 연구는 설득력이 있다. 이와 함께 ‘실향민’의 삶으로 이 작품을 접근하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실향민’의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실향민은 주인공 ‘나’가 전학 간 학교에서 가진 생각이다. ‘나’는 자신을 “촌놈”(30면)이라고 놀리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도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았다. “이 바닥 태생의 본토바이들과 전쟁 중에 쫓겨온 피난민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처럼 그다지 떼떽지 못한 이유로 고향을 등진 사람들”(31면)로 구분하면서 자신을 ‘실향민’으로 규정하였다. 실향민 의식이 강해질수록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의 동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년 화자 ‘나’의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뉜다. 바로 고향에 대한, 또는 원형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도시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는 의식이다.

‘나’에게 새로운 주거 환경은 고향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이다. 맨 첫 장에 그려진 고향에서의 충만한 삶이 낯선 도시 판자촌을 절망적인 공간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고향의 행복한 이야기로 시작한 이후에 펼쳐지는 낯선 도시에서의 삶은 ‘나’와 가족들의 도시 부적응, 상실감, 절망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나’가 판자촌을 떠난 이후 다시는 그곳을 방문한 이야기가 없는 것²²⁾처럼 그의 고향에 대한 방문²³⁾도 언급이 없다. 그에게 고향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의 소년화자를 ‘실향민 의식’이 강한 인물로 보면서 그의 성장에 판자촌이라는 공간과 음식의 문화적 재현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였는지 관심을 둘 것이다. 이 작품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고 본다.

이 작품에서 도시는 구체적 지명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대구로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다. 작품에 나타난 심한 추위를 몰고 오는 분지 지역의 특성, 시비(詩碑)가 있는 공원의 묘사가 대구 달성공원의 모습과 일치하며, 판자촌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대구 지역의 역사경관의 조사 내용²⁴⁾과도 일치하고 있다. 낡은 루핑으로 이어진

21) 양진오, 『「장난감 도시」와 장소의 문화적 의미』,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18), 257면.

22) 『마당 깊은 집』에서 주인공 ‘나’는 성인이 되어 ‘마당 깊은 집’ 지역을 다시 방문하며, 함께 세들어 살았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다.

23)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의 주인공 ‘나’는 소설가로 성장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연로한 어머니에 대한 감정변화를 드러내거나 독자로부터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24) “한국전쟁 당시 대구는 각지에서 몰려온 피난민들로 인해 매우 혼잡스러웠다. 6·25 전쟁 당시 피난

지붕들과 골목마다 넘치는 쓰레기와 오물냄새로 가득한 판자촌은 ‘나’에게 ‘장난감 도시’처럼 느껴진다. ‘장난감’이라는 표현 속에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곳, 실체가 아닌 것, 반감, 실망, 회색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고향에서 익숙한 가구들이 판자촌 골목에서 “이물감”을 느끼게 한 것은 이 낯선 세계에 동화할 수 없는 가족의 비애를 드러낸 첫 모습이라 하겠다.

고향과 판자촌의 강렬한 대조는 ‘물’에서 나타난다. ‘나’가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것은 물이었고, 아버지는 물대신 돈을 준다. ‘나’는 물장수에게 한 잔의 물을 샀는데 그물은 “길은 오렌지 빛”(21면)이었다. ‘나’가 도시에서 처음 마신 물은 고향에서의 물, 자연의 물이 아니라 변질된 물인 것이다. 낯선 도시가 안겨 주었던 경이와 흥분은 ‘나’의 몸이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 오렌지 빛의 물로 인해 결국 “나는 자꾸만 어지럼증을 타고, 급기야는 속엿것을 울켜 토해놓고 말았다.”(23면) 도시에서 처음 마신 물, 즉 음식을 토한 것은 그가 이 도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이 된다.

밥은 오렌지 물을 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노란 빛깔이었다. 물이 나쁜 탓일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공동 펌프장에서 길어온 그 물은 역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중략) 나는 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던 판이었다. 게다가 어쨌든 귀한 이밥이었다.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술을 떠넣었다. 그러고는 생선 처음 입에 넣어보는 음식처럼 조심스레 씹었다. 쇠내 같은, 아니 쇠의 늑냄새 같은 게 혀끝에서 달착지근하게 느껴졌다. 다시 한 숟갈을 퍼 넣었다. 그러자 저 오렌지 빛의 물을 마시고 났을 때처럼 속이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²⁵⁾

소년화가 ‘나’가 두 번째 먹은 음식은 ‘노란 빛깔의 이밥’이다. 오렌지 빛의 물로 지은 밥이기에 노란색이며 악취마저 심하다. 어머니는 공동 펌프장에서 길어온 역한 냄새가 나는 물을 보고, “시궁창 바닥에다가 한 자 깊이도 안 되게 박아놓은 펌프물

민촌의 모습으로 전형적인 불량주택지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까지 반세기 동안 존재하던 달성 공원 복원 천평 규모의 무허가 주택지 역시도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곳이었다.” 송주연, 『도시정체성의 관점에서 본 대구 역사경관 읽기』, 『학교교육연구』 제6권(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10), 85면.

25) 이동하, 『장난감 도시』(문학과지성사, 2009), 23면. 이후의 인용은 면수만 기재한다.

이 오죽할라구요……”(23면)라며 절망감을 느꼈다. ‘나’는 허기 때문에, 더구나 ‘귀한 이밥’이었기 때문에 먹기는 하였지만 조심스럽게 씹은 밥에서는 ‘쇠의 녹냄새’가 났고, 결국은 밤새 공동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판자촌 도시에서 처음 접한 음식인 물과 밥은 모두 ‘나’의 몸을 괴롭힌 것으로서 열악한 환경의 상징이자, ‘나’의 도시 생활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상징물이 된다. 밥에서 나는 ‘쇠의 녹냄새’는 이 작품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후각으로서 ‘나’의 불안한 정서와 타자와의 거리감을 드러낼 때마다 등장하는 감각적 표현으로 자리잡는다. ‘쇠의 녹냄새’는 오렌지 빛 밥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후각이다. 도시에 대한 이와 같은 이미지는 판자촌이 병리적 징후를 드러내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병리적 징후의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나’의 온 가족이 매달렸던 풀빵 장사의 실패, 아버지의 새로운 직업과 장물 운반으로 인한 수감 상태는 고향의 상실이 결국은 가족의 해체 수순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외병으로 ‘나’의 남매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극심한 기아상태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외병 중이던 몸을 이끌고 ‘나’를 앞세워 이복동생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조카인 ‘나’와 누나를 박대했던 외삼촌에게 ‘나’가 맡은 냄새는 바로 ‘쇠의 녹냄새’이다. 전쟁 중에 팔 하나를 잃은 상이군인인 외삼촌의 첫인상은 “벌겍게 녹이 슬고 작은 부품들이 망가져 있으면서도 그러나 본래의 기능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총기류(總銃類)를 대했을 때처럼 무언가 차고 섬뜩한”(117면)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쇠의 녹냄새를 풍기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미래의 매형이다. 굶주림의 상태는 딸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모성과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만들었다. 누나를 판자촌에서 부자로 통하는 두부공장집의 민며느리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문제는 4명의 아들 중에 미래의 매형이 전쟁 중에 다리를 하나 잃은 불구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나’는 그에게서도 ‘늑속 쇠’의 냄새를 맡았다. 또한 누나에게서도 서서히 이 냄새를 맡으며 적대감을 갖게 된다. 강렬한 ‘쇠’의 냄새는 고향을 상징하는 ‘흙’의 냄새를 몰아내는 것이다.

『장난감 도시』에 그려진 어머니는 더 이상 고향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다. 고향을 상실하고, 남편을 상실한 상처는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의 의무마저

상실한다. 아버지의 수감 직후, 어머니는 자신의 임신을 알았지만 오로지 물만 섭취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외병 상태에 이른다. ‘나’는 어머니처럼 ‘물’ 한 모금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기에 결국 구결에 나선다. 구결한 음식을 담은 군용 반합을 주민들에게 들이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누나와 연명하였다. 정월 대보름날 행운처럼 온갖 곡식을 얻은 그는 개에게 물리는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된다.

속이 텅 빈 군용 반합이 발부리에 뒹굴고 있었다. 얼어붙은 땅바닥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 내가 당한 재난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치욕스러운 내 작은 우주가 온통 엷질러져 있는 느낌이었다.(140면)

‘나’는 개에게 물린 이픔보다 군용 반합에 가득 담긴 일용할 양식의 무용 앞에서 ‘참담한 재난’과 ‘치욕’을 느낀다. 판자촌에서 느낀 실형된 의식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의 시작은 바로 이날이었을 것으로 본다. ‘내 작은 우주가 온통 엷질러져 있는 느낌’은 구차하게 연명해온 삶이 파괴되는 양상이며,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식의 발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가 개주인의 보상금으로 절정에 도달한다. 개 주인은 ‘나’의 상처를 돈으로 보상하였고 그동안 굶주린 영혼은 가족도 잊은 채 돈을 모두 당진할 때까지 음식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절망케 한 것은 터질 듯한 그 포만감이 아니었다. 이제는 물 한 모금, 콩 한 면도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수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이하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욕망이 문제였다. 그것은 계속 새로운 먹이를 요구하고 있었다. 퍼내도 퍼내도 결코 다함없는 갈증이었다. (중략) 나의 행운은 이제 바닥이 나버렸다고 나는 생각했다. 최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역시, 변함없는 재난이었다. 속이 빈 반합과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주머니와 그리고, 여전히 게걸스럽게 짹짹거리고 있는 굶주린 혼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었다. (142~143면)

동물적인 상태에 내몰린 ‘나’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굶주린 혼’이라는 사실이다. 충족되지 않는 음식에 대한 욕망은 게걸스러운 섭취로 이어지고 ‘나’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 ‘굶주린 혼’에게 굶주림의 대상은 단지 음식만은 아니었

다. 포만감 속에서도 갈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주인공의 심층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갈증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결핍²⁶⁾이었다. 소년화자 ‘나’에게 판자촌의 생활은 결핍감이 중층으로 누적되는 결여의 시간이었다. 신체적 허기의 결핍과 가족 간의 사랑의 결핍이 그것이다.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무기력 상태, 누나의 침묵, 외삼촌의 냉대, 매형이라 불릴 사람의 무관심 등 ‘나’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온정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시에 와서 처음 섭취한 오렌지 빛의 물과 밥을 구토로 마감한 첫날처럼 음식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구토라는 몸의 신호로 저지되었다. 구토의 증세는 ‘나’가 이 도시에 적응할 수 없다는 신호이거나, 도시에 와서 “양심을 팔아먹은 아버지와 자존심을 거덜 낸 아들”(137면)이라는 유사한 모습에서 좌절감을 느낀 무의식의 증세일 수 있다.

물로만 연명하던 어머니는 누이가 시켜준 “국물없는 국수”(158면)(자장면)를 먹고 세상을 떠나고, 출옥한 아버지는 이웃들과 새로운 음모를 꾸미며 공허한 웃음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부공장의 민며느리인 누나는 살이 오르고 행복한 모습 이면서도 ‘녹슨 쇠’의 냄새를 풍기는 혈육으로 남아 있다.

① 누나의 그 건강함과 행복이 나의 적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때로는 적의를 넘어 어떤 혐오감까지도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테면 누나에게서 그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을 경우였다. 그랬다. 그것은 인젠가 어머니를 따라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에게서 맡은 바 있었던 그 녹슨 총기 냄새였다. 외삼촌은 다리 대신 팔 한 짝을 전쟁터에 묻고 온 사내였던 것이다.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에게도 분명히 그 냄새가 났다.(190)

② 시골 마을에 살 때…… 감꽃이 하얗게 이을 때쯤이면 아이들은 곧잘 새벽잠을 설치곤 했다. 때로는 어둠이 채 물러나기도 전에 뚝뚝 눈을 비비며 사립을 나서지 않았던가. 누나와 나는 마을 고샅길을 두루 순례하며 감나무란 감나무는 죄 찾아다녔다. 다른 애들의 손길이 거쳐가지 않은 나무 밑엔 자디잔 감꽃들이 융단처럼 땅을 허영게 뒤덮고 있었다. (215~216면)

26) 우찬제, 『섬생의 정치경제와 생태 윤리』, 『문학과 환경』 9(문학과환경학회, 2010), 57면.

‘나’가 누나에게 느끼는 적의, 혐오감, 녹슨 총기의 냄새 등은 고향에서 누나와 함께 아침 일찍 감꽃을 주우러 다녔던 순수의 세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심리라 할 수 있다. ②에 묘사된 것과 같이 ‘웅단처럼 땅을 허영게 뒤덮고’ 있는 감꽃들의 이미지는 바로 ‘나’의 고향이 이상향으로 회상되는 주요한 추억이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감꽃이란 순수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몽환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고향과 누나에 대한 상실감은 소년화자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판자촌에 머물 수 없게 된다.

『장난감 도시』는 새로 정착한 판자촌 공간에서 실험된 의식과 가족의 해체를 겪은 소년화가 ‘나’가 음식과 사랑에 ‘끓주린’ 영혼이 되어 꿈이 사라진 판자촌을 탈주하는 이야기라 하겠다. 이때 음식은 끓주린 영혼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거나 회귀할 수 없는 고향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물이 된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보아야 할 것은 이 작품을 전개하는 서사의 축에 음식과 사랑의 결핍 이외에도 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인 ‘힘’²⁷⁾에 대한 논리가 작동된다는 점이다. 힘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4. 탐색자와 세상의 발견

이 장에서는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1988)에 나타난 음식 문화가 소년화자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는 앞서 보았던 두 편의 작품만큼 음식 모티프가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지는 않다.

27) 소년 무리들의 밤사냥과 ‘강씨 이발관’에서 활극처럼 펼쳐지는 폭력배들을 제압하는 강씨는 판자촌 소년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다. 이발관 주인 강씨는 수려하면서도 섬약해 보이는 외모를 지녔지만 군대에서의 무용담과 이발관에서 발생한 몇몇의 테러를 소년들의 눈앞에서 막아낸 모습 때문에 판자촌의 소년들에게는 우상이고 영웅이었다. 그러나 강씨의 몰락은 소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준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행되는 힘의 논리 앞에 패자가 된 강씨는 결국 죽음을 맞고, ‘강씨 이발관’의 상호가 ‘희망 이발관’으로 변경되는 삶의 부조화 속에서 소년들, 특히 ‘나’는 판자촌에서의 삶에 희망을 잃고 만다. 그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해체를 겪고 이어서 그의 영웅의 죽음을 목도하며 마침내 판자촌을 떠나게 된다. 이 작품에서의 ‘힘’은 앞서 보았던 『마당깊은 집』에 나타난 주씨의 ‘힘’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소년들에게 ‘힘’이 가장 선망의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작품에 나타난 힘은 전쟁 이후에 재편되는 자본의 논리를 상징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둔다.

그러나 시골 장터를 주요 공간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 가난한 형제인 형석과 형호에게 몇 가지 강렬한 음식 모티프와 ‘힘’은 그들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상징물이 된다.

우선, 이 작품의 배경인 장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장터는 ‘유랑민 작가’²⁸⁾ 또는 편력의 작가로 조명받은 김주영의 글쓰기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의 연보를 참조할 때, 이 작품에 나타난 ‘장터’는 자전적 요소²⁹⁾가 반영된 장소라 하겠다. 장소는 주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문화적 개념³⁰⁾이 작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장터 또한 소년화자 ‘나’와 아우의 정체성 형성과 성장에 무관할 수 없는 장소가 된다.

장터는 개방적인 성격이 강하여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상업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가 교류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장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시대의 문화가 교류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문학적 재현에서는 만남과 이별의 공간으로 부각되거나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모험심, 편력의 태도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 장터는 유소년의 성장기를 보낸 소년화자 ‘나’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나의 낯선 곳에 대한 동경은 그가 정거장을 유난히 좋아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나가 완행버스를 구경할 수 있는 정거장을 좋아하는 내면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이 잠재한 것이다. 한편, 낯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은 교실 마루 밑의 미로체험과 이발관의 거울에서 잘 드러난다. 교실 마루 밑에서 바라본 운동장은 사물이 전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전도’ 체험은 이발관의 대형 거울에서도 나타난다. ‘나의 강렬한 호기심의 절정은 이발관에 걸린 수채화가 될 것이다. 수채화에 대한 관심은 장식도의 도움을 받아 결국 폐쇄된 이발관에서 그 그림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28) 오생근, 『김주영의 유랑민 작가의식과 성장소설』, 『문학동네』 제22권(문학동네, 2015), 1면.

29) 김경수가 밝힌 김주영의 연보에 의하면, 김주영은 1946년 8세 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당시 그의 집이 위치했던 곳은 5일마다 장이 열리는 저갓거리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버지는 타관에 있었고 또 월전리에 있는 외갓집 또한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그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건사하기 위해 바로 그 저갓거리 마을에서 품을 팔아 생활을 영위했으며, 그는 동생과 함께 그 “시장바닥에서 악명 높은 문제야”로 자란다.(김경수, 『작가, 혹은 편력하는 인간』, 『김주영 깊이 읽기』, 황종연 엮음(문학과지성사, 1999), 45면.)

3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 2015), 30~32면 참조.

이 글에서는 소년화자 ‘나’의 이러한 성향을 ‘탐색자’로 호명하며, 탐색자의 위치에서 발견한 세상의 이치가 그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목할 것이다. 이때 음식 모티프와 전근대적 ‘힘’의 몰락이 연동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 ‘나’(형석)에게 시골 장터에서의 소년 시절은 신체적 허기와 정신적 공허에 시달리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와 아우는 어머니가 이웃 동네로 품을 팔러 다니는 부재의 시간 동안 “혹독한 굶주림”(13면)의 두려움보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리움의 시간으로 채워진 “외로움”(14면)을 더 두려워하였다. ‘나’의 정서적 허기, 즉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빚어진 정신적 공허를 채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소년화자의 성숙도와 비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사랑에 목마른 두 형제는 밤늦도록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직접 일터로 찾아나선다. 그곳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모습은 두 형제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허약한 아우도 업어주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주인집 아이를 업은 채 일하고 있었다. 두 아들이 받은 충격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었고, “어머니의 허상”(66면)을 발견한 듯한 아픔이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태도를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해하게 된다. 우연히 고향에 들러 텃밭을 매는 연로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업어드리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는 자신의 태도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 형제가 신체적 허기를 충족시키는 일은 ‘장터’라는 공간의 특성에 부합하는 음식 모티프로 나타난다. 바로 양조장의 ‘고두밥’이다. 고두밥은 술을 담그는 재료로서 밥을 찌서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막걸리를 담그기 위해 술도가 뒤뜰에 걸어둔 섬들이 가마솥에서 고두밥을 찌냈고, 날이 시퍼런 가래삼으로 퍼낸 고두밥을 앞면 한터에 멍석을 내다 놓고 말렸다. (……) 유독 고두밥을 찌내는 날에만 술도가 주변에서 숭바꼭질이나 자치기놀이를 벌이는 악다구니들이 많았다.³¹⁾

술도가 마당에서 말렸던 하얀 고두밥은 ‘나’ 형제뿐만 아니라 장터의 아이들에게

31) 김주영,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민음사, 1993), 23면. 이후의 인용은 면수만 기재한다.

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먹거리이다. 고두밥을 말리는 날에는 장터의 모든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양조장 근처에서 놀이를 하며 고두밥을 훔칠 기회를 노린다. 술도가의 일꾼인 장석도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악다구니’ 아이들로부터 고두밥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고두밥을 훔쳐 먹는 행위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장석도와 자신들의 관계이다. 장석도의 존재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은 악다구니들의 끊임없는 고두밥에 대한 탐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고두밥은 장터 아이들에게는 굶주림을 대체하는 양식으로서, 장석도에게는 ‘일’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대립과 공존의 의미를 보여주는 음식이다. 이를 통해 세상살이의 한 단면을 터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에 형상화된 어머니는 앞서 살펴보았던 두 작품의 어머니와 비교할 때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을 드러낸다. 『마당깊은 집』의 어머니가 ‘장자 만들기’에 몰두하였고, 『장난감 도시』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관심을 거두었다면, 이 작품의 어머니는 여성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들에게 ‘밥’에 대한 외경심, 밥에 대한 숭배를 드러낸다. 후자부터 살펴보겠다.

“이것아 밥이란 것이, 제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하루 세 끼 떠먹여 주는 사람가진 처지가 아닌 이상 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른이시다.”

“인두점을 쓰고 있다 해서 모두가 사람이 아니듯이 밥에도 온당한 것이 있고 온당치 못한 것이 있다. 온당한 밥을 먹고 살아야 그게 사람 명색이다. 허우대에 버금가는 밥을 먹고 살아야 민망하지도 않다. 요새 먹고 있는 밥들이 어디 온당한 밥이더냐. 너뿐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다.”(34면)

어머니는 노동의 신성함과 정직한 방법으로 밥을 먹어야 함을 강조한 인물이다. 그래서 소설가로 성장한 아들이 자신을 고급 음식점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하였을 때 음식을 먹지 않고, ‘밥’에 대한 생각을 인용문처럼 드러내었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은 서양식이었고, ‘밥’에 대한 숭배의식을 지닌 어머니는 칼질을 하면서 먹는 음식 문화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머니의 밥 또는 쌀에 대한 외경심이 두 아들에게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한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어머니가 고미다락에 숨겨둔 쌀과 곡식들을 우연히 발견한 사건이었다. ‘나’의 형제를 괴롭힌 음식의 결핍은 외면으로까지 드러나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때 늘 위축된 모습을 띠고 있었다. 굶주림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모습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결핍으로부터 두 형제가 드디어 자유로울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다.

적어도 그 다락 속에는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에 명분을 줄 만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것을 발견했고 해답도 얻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무심코 지독의 뚜껑을 열어 봤을 때였다. 지독의 뚜껑을 열어제친 순간, 나는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소스라쳐 지독의 뚜껑을 닫고 문면으로 기어나갔다. (……) 놀랍게도 그 지독엔 가냘까지 넘쳐내릴 것 같은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도정(搗精)까지 마친 하얀 멍쌀이었고 옆에 있는 지독엔 보리쌀이 반 넘어나 채워져 있었다. 채워 놓은 곡식에서 풍기는 특유의 비릿한 누런내가 코로 스며들었다.(115면)

‘나’의 형제는 우연히 고미다락의 자물쇠가 열린 것을 보고, 어머니가 숨겼다고 생각하는 미제과자를 찾기 위해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나’는 어머니가 숨겨둔 하얀 멍쌀을 발견하였다. 어머니는 그동안 품삯으로 받아 온 곡식을 자식들 모르게 살뜰히 모아왔던 것이다. 심지어 아우가 미군에게 얻어 온 미제과자도 대서방 처녀에게 곡식으로 바꾸어 이 다락에 숨긴 것이었다.

심한 굶주림 속에 있었던 ‘나’의 첫 반응은 어머니에 대한 심한 배신감이었다. 이렇게 ‘도정까지 마친 하얀 멍쌀’이 지독 가득히 있음에도 자신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던 것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라 하겠다. 그러나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태도로 인해 두 아들은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어머니가 고미다락을 봉인한 자물쇠를 제거함으로써 쌀의 의미가 달라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동안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런데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로 그것은 우리 세 사람 모두의 것이 되었다.”(129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이제 ‘나’ 형제는 집안에 늘 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불리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두 아들의 충족감은 어머니의 ‘쌀’에 대한 숭배, 온당한 밥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어머니가 앞서 살펴본 두 편의 어머니와 또 다른 점은 여성성을 고백한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과부이기에 여성성을 억압해야 하는 존재론적 고통을 지닌 인물이 다. 그러나 어머니는 장석도에게 밥상을 차려준 일을 고백하면서 여성으로서 인내해야 하는 고통을 드러내었다.

다만 남편이 없이 혼자된 계집 사람의 팔자 소관 탓이라고 생각하고 부업으로 나갔다. 한저녁을 지어서 부업 바닥에 소반을 놓고 저녁밥인지 새벽밥인지를 차려 놓았다. 구린 입도 떼지 않고 부업문 밖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부업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어준 한저녁을 다 먹더라. 그때가 못 되어도 첫닭 울 때는 되었을 게다. 불태기(불타구니)에 눈물자국이 선명하도록 울면서 밥을 먹는 다 큰 남정네를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그러곤 뜨락으로 나와서 나한테 꾸벅 절을 하더라. …… 하지만 내가 외간의 남자를 부업 바닥일 망정 집으로 불러들여서 저녁밥 대접을 해준 사람은 석도 그 사람뿐이었다.(292면)

호기심이 강한 탐색자 ‘나’는 이발관 주인이 사회주의자로 드러나고 이발관이 폐쇄되었을 때 장석도의 도움으로 수채화를 빼내온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장석도와 어머니는 경찰의 신문을 받는 곤경에 처한다. 어머니는 아들의 일에 장석도가 연루되어 고통을 받고, 마을을 떠난 후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장석도는 괴력을 가졌으나 우민한 점 때문에 장터에서 놀림을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주던 모습에서 인간의 순수성을 발견하였다. 장석도는 장터를 떠나 다른 곳에 살면서도 어머니의 온정을 잊을 수 없어 그녀를 보기 위해 밤길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이러한 장석도에게 내외간의 윤리를 지키는 규범 속에서 그에게 대접할 수 있는 최상의 밥상을 마련하였다. 어머니의 이러한 고백은 소년 화자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서 성장의 마디들로 작용하였다.

이 작품에서 가장 서정적으로 드러난 음식 모티프는 ‘작품 후기’에서 밝힌 ‘감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작품 후기를 본문 내용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지 조심스러웠으나 “이 소설을 쓰면서 나는, 반드시 적었어야 했을 한 대목을 의도적으로 빠뜨렸다.”(303)라는 문장의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본문 내용과 함께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어쩌면 이 후기의 ‘감꽃나무’ 이야기가

이 작품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후기에 나타난 음식 모티프 ‘감꽃’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고사(枯死) 직전의 감꽃나무 한 그루가 아우와 나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가 어느해 5월이었다. 5월이면 보리농사를 밭바십하기 직전이어서 사람들은 보릿고개의 절정에서 혹독한 기근을 견디고 있을 무렵이었다. 것처럼 절박한 시기에 그 늙은 감꽃나무는, 아우와 나의 게걸스런 허기를 달래 준 유일한 구황목(救荒木)이 되어 주었다. 새벽 여명이 희뿌연게 밝아올 무렵, 그 나무 아래로 달려가 보면, 시리도록 선명한 담황색의 감꽃들이 우박처럼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흡사 뺨튀긴 강냉이를 자루째 좌르르 쏟아놓은 것처럼 보였다. 유독 그 나무에서 많은 감꽃들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성장과는 등을 돌려 버린 고목이었기에 많은 꽃망울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우와 나는 새벽마다 나무를 찾아가서 그 낙화(落花)들을 주었다.

감꽃은 새콤하면서도 달았다. 우리는 그 새벽의 낙화로 아침녘의 굶주림을 달래곤 하였다.(303~304면)

‘나’ 형제의 신체적 허기를 채운 음식은 고두밥, 술지게미, 미군이 던진 초콜릿, 옥화의 시루떡 등으로 등장한다. 무엇보다 그에게 정결한 음식으로 기억된 것은 ‘담황색의 감꽃’이었다. 고목이 ‘나’의 형제들에게 베푼 감꽃은 ‘성장과는 등을 돌려 버린’ 고목의 결정체로서, 자신의 모든 정기를 모아 두 소년을 성장시킨 자연의 숭고함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감꽃 이미지는 『장난감 도시』에 나타난 ‘감꽃’과 유사한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자유로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소설가’의 위치에서 이미 사라진 ‘감나무’를 그리워하는 정서로 가득하다면, 후작에는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비애가 서려 있다.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에서 ‘나’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 요소로 살펴볼 때, 또 다른 요소는 장석도의 괴력³²⁾이다. 장석도가 ‘삼손’의 별명으로 불리는 설정에서 ‘힘’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다. 삼손과 같은 엄청난 힘을 소유한 장석도는 전근대적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근대성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시계포의

32) 이 부분 역시 각주 20), 27)에서 밝혔듯이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추후의 연구에서 살펴보겠다.

최씨에게 조롱을 당하고 결국 장터를 떠나는 것은 전근대적 힘의 패배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우상이었던 장석도의 몰락은 소년화자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행되는 위악의 모습을 발견한다.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개방적 성격을 지닌 장터에서 자란 소년화자 ‘나’의 성향이 탐색자로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 강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결핍의 시간을 극복하는 과정, 어른들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이해 속에 음식의 기여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마당 깊은 집』, 『장난감 도시』,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힘’이 주인공 소년화자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음식의 문학적 재현을 통하여 한국전쟁 직후, 정신적·물질적으로 결핍의 고통이 심했던 주인공 소년들의 의식과 성장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소년 화자를 내세워 세상의 이치, 또는 삶의 부조화를 보여주면서 소년의 성장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려내고 있다. 이때 소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대상은 ‘음식’으로서 이는 빈곤의 일상화가 소년의 꿈과 희망을 잠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당 깊은 집』의 주인공 ‘나’ 길남은 억척스러운 삶의 자세를 지닌 어머니 밑에서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지니도록 훈육받은 소년이다. 한국전쟁 후, 대구에서의 생활, 즉 ‘마당 깊은 집’은 굶주림의 시절로 회상되지만 ‘마당깊은 집’이라는 장소는 ‘나’를 보호하고, 깨우침을 준 장소로서 어머니가 원하는 ‘장자’로서의 의식을 형성하게 된 공간이기도 하다.

주인공 ‘나’를 가장 곤경에 빠뜨린 것은 모두 음식과 관련 있다. 주인집의 음식을 훔쳐먹은 일, 장정의 밥먹는 모습을 구경하기, 크리스마스 파티(음식) 구경하기 등에서 ‘음식’은 그의 신체적 허기를 표현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노동 후에 찾아오는 ‘온당한 밥’에 대한 경건함, 모성애와 가족애를 깨우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즉 음식

에 대한 ‘나의 욕망은 신체적 허기를 드러내는 구체성이자 동시에 가족의 애정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안채의 식모 안씨가 보여준 따뜻한 찹고, ‘힙쓰기’의 이치를 충고한 주억술, 상이군인 준호아버지의 리더십 등, 무엇보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통해 장자의식을 형성하고, 가족애를 실천하는 가족주의를 습득하는 것이다.

『장난감 도시』는 고향에서 내침을 당한 ‘나(윤)의 가족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판자촌 생활에서의 부적응을 그리고 있다. 판자촌은 한국전쟁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나의 가족은 이곳에서 서서히 가족의 해체에 직면한다. 이때 정상적인 섭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조악한 음식들은 주인공 ‘나’에게 고향의 상실감, 가족의 해체, 애정결핍 등을 구체화하는 매개체가 된다.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고향의 근원적 사랑, 혈육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서 가족과 이별하는 가족의 해체를 보여준다.

판자촌에서 ‘나’가 겪는 어려움은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외병 속에서 음식의 결핍과 사랑의 결핍을 견디는 것이다. 그에게 판자촌의 장소는 고향의 상실감을 또렷하게 한 신허면의식을 부각시킨 장소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처음 접한 오렌지빛갈의 물과 밥, 군용 반합에 구결해온 음식, 생사공장에서 가져온 번데기 등의 조악한 음식들은 모두 그의 신체에 거부작용을 일으켜 ‘구토’의 증세로 나타난다. 소년화가 ‘나의 내면에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어머니에 대한 연민, 굶주림 때문에 민며느리로 들어간 누이에 대한 적의 등이 쌓여 간다. 그는 기아상태의 굶주림과 사랑의 결핍, 아버지의 양심부재와 자신의 자존심 부재를 느끼며 결국 판자촌을 떠나게 된다. 고향을 상실한 자의 길떠나기라 하겠다.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시골 소읍의 장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홀어머니 아래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한 형제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장터라는 공간은 ‘나의 성향을 탐색자로 형성시킨 면이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음식문화도 장터와 관련 있다. 양조장의 ‘고두밥’이 대표적이다. ‘나의 형제가 양조장의 일꾼 장석도의 ‘합’에 대한 선망, 이발관의 거울을 통해 ‘미로와 전도’의 의미를 파악한 것 등은 어른들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미다락의 지독에 가득 담겨 있는 쌀과 곡식은 두 형제를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새로운 경험이 된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원일, 『마당 깊은 집』, 문학과지성사, 2007.
김주영,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민음사, 1993.
이동하, 『장난감 도시』, 문학과지성사, 2009.

2. 논문

- 김경수, 『작가, 혹은 편력하는 인간』, 황종연 엮음, 『김주영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45면.
_____, 『소설·여성·음식』, 『인문과학연구』,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김동식, 『1920년대 중반의 한국문학과 ‘끼니’의 무의식: 김기진과 최서해 그리고 ‘밥’의 유물론』, 『문학과 환경』 11(1), 문학과환경학회, 2012.
김미영,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주제화의 방식-한강과 오수연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 비평연구』 제5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_____,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의미 -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81집, 우리말글학회, 2019.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김주연, 『한국 음식소설의 맥락과 가능성 - 한국 음식문화의 맥락과 가능성①』,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양진오, 『『장난감 도시』와 장소의 문학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257면.
송주연, 『도시정체성의 관점에서 본 대구 역사경관 읽기』, 『학교교육연구』 제6권,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10, 85면.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9, 문학과환경학회, 2010.
오성근, 『김주영의 유랑민 작가의식과 성장소설』, 『문학동네』 제22권, 문학동네, 2015.
우찬제, 『섭생의 정치경제와 생태 윤리』, 『문학과환경』 9, 문학과환경학회, 2010, 57면.
이 경, 『5·60년대 한국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가을/겨울, 한국사회이론학회, 2004.

3. 단행본

- 공지영, 『시인의 밥상』, 한겨레출판, 2016.
권오룡 엮음, 『김원일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1.
김 훈,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2015.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성석제, 『소풍』, 창비, 2006.

- 성석제, 『칼과 황홀』, 문학동네, 2011.
- 소래섭, 『백석의 맛』, 프로네시스, 2018.
- 윤대녕, 『칼과 입술』, 문학동네, 2016.
- 최은영 외, 『파인 다이닝』, 은행나무, 2018.
- 황석영, 『초판 서문 먹지 않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황석영의 밥도둑』, 교유서가, 2016, 265면.
- 캐롤 M. 코니한, 『음식과 몸의 인류학』, 김정희 옮김, 갈무리, 2004.
- 황종연 엮음, 『김주영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The Literary Reproduction and Meanings of Food in Narratives by Boy Narrators

: Focused on *The House with a Deep Yard*, *A Toy City*,
A Fisherman Does not Snap the Reed

Kim, Mi-young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meanings of growth among boy protagonists that suffered the severe pain of mental and material deficiency right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through the literary reproduction of “food” in *The House with a Sunken Courtyard*, *A Toy City*, and *A Fisherman Does not Snap the Reed*. These three works show the ways that the growth of a boy is embodied by depicting the way of the world or the disharmony of life through a boy narrator. Here, “food” is the object that governs the consciousness of boys, specifying their daily life in poverty and thus becoming a symbol of the achievement and frustration of their dreams and hopes.

In *The House with a Sunken Courtyard*, the main character “I” or Gil-nam is taught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the eldest son under her mother with a tough life attitude. Life at the “house with a sunken courtyard” reminds him of the days of starving. All the episodes that put him through the biggest hardship have something to do with food. In episodes where he steals food from the landlord’s place, watches a strong young man having a meal, and watches a Christmas party(food), “food” is a straightforward expression of his bodily hunger and element to awake him to the reverent nature of “meals” after labor.

A Toy City describes the maladjustment of “my”(Yun’s) family in a shantytown

with its inferior living environment exposed as it is after they are cast away from their hometown. “My” family gradually faces their deconstruction in a shantytown. Foods that are far from normal objects of food intakes become media to make the loss of the hometown, deconstruction of family, and lack of affection concrete to the main character “I”. In “my” unconsciousness, I realize that the fundamental love of his hometown and the love of his family will never be possible again through food.

A Fisherman Does not Snap the Reed is set in a marketplace of a small town in the country. The work mainly tells the stories of poor brothers suffering hunger under a single mother. The space of a marketplace turns “my” disposition into that of an investigator. In this novel, the food culture has something to do with a marketplace. One good example is “hard-boiled rice” at a brewery. “I” and my brother discover the world of adults through their yearning for the “strength” of a brewery worker named Jang Seok-do and the meanings of “maze and propagation” via the mirror at the barber shop. The jars full of rice and grain in the attic are, in particular, new experiences for the brothers to escape from the world of deficiency.

In these three works, food is the basis of life maintenance and, at the same time, literary material to reveal the meanings of human life. *The House with a Sunken Courtyard* shows ties between a boy trained to serve as the eldest son through food and his family. *A Toy City* depicts the sorrow of a boy experiencing the loss of hometown and the deconstruction of family through food. Finally, food shows the growth of a boy realizing the way of the world in *A Fisherman Does not Snap the Reed*.

Keywords : *A House with a Deep Yard*, *A Toy City*, *A Fisherman Does not Snap the Reed*, space, food, eldest son, starvation, lack of love, marketplace, discoverer